

15 |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 : 32).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하나님의 진리 등대”(새 510장, 통 276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 : 31~33

성경말씀 경청하기 말씀 해석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교 전통하에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천국’의 비유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매우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됩니다. 또한 누룩을 천국 비유에 사용하신 이유는 그 자체로는 볼품없이 보이나 그 속에 생명이 있어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1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지만 나무처럼 자랍니다(31-32절).

2 천국은 누룩처럼 가루 서 말을 부풀게 할 만큼의 생명력이 있습니다(33절).



성찰하기 이야기를 읽고 질문을 통해 깨달은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두 목사가 앉아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로버트 마펏이라는 청년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회를 가졌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청년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목사가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 로버트 마펏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은 선교사가 되었고, 또 다른 목사가 일주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혹 지금의 모습이 미약하여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결단하기 실천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가 속한 세상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걸 사람과 속사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봉헌찬송 “눈을 들어 하늘 보라”(새 515장, 통 256장)

오늘의 기도와 주기도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후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지치고 힘든 이웃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거대한 나무와도 같은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